

타이트피트형 의복설계를 위한 계측기 개발에 관한 연구

조 덕 남 · 나 미 향* · 정 복 희**

J.J패턴대표, *청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충청대학 패션산업디자인과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ody Measuring Tool for Tight-fit Type Clothing Construction

Dug-nam Jo · Mi-hyang Na* · Bock-hee Jung**

J.J Apparel Pattern Promotion, *Division of Fashion Art Chongju University

**Dept. of Apparel Design Chung Cheong College

(1999. 11. 1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measuring tool that can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and pattern, the result can be directly digitalized and developed as the pattern as body form is. There are 6 measurements;

1) the width of front and rear neck 2) the slant degree of shoulder 3) the degree of protrusion of breasts and scapulae 4) the separation of front and rear board 5) space between body and clothes 6) vertical strand in the clothes

Developed measuring tool is handy in use, in which points of body to be measured are small, and it has the capability of designing the high fitness for body.

The measurer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is named as 「Somato-pattern Measurer」, size paper is named 「Somato-pattern Paper」 and the pattern made by 「Somato-pattern Measurer」 is named 「Somato-pattern」 respectively by our tea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ought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solving the various problems which can be derived in the time of pattern design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physical forms in the same size as well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ctor of size and that of form in body.

Key words: standard somatotype, turning over somatotype, bending somatotype, the factor of body, the factor of texture; 정체, 반신체, 굴신체, 인체요인, 직물요인

I. 서 론

의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계측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연구된 많은 선행연구문헌^{1~5)}에서도 계측은 비중있게 다루어져 왔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 왔다. 그 중 마르틴 계측기는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대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며, 인체의 모든 부위를 1차원적이며 단편적으로 쉽게 계측할 수 있었으므로 체형연구에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의복설계를 위한 구성학적인 측면에서의 계측활용,

즉 입체형상의 인체를 패턴과의 관계로 연계시키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정체, 굴신, 반신, 비만체 등 체형과 볼륨에 따른 구도적 각도를 가지고 있는 인체의 입체적 형상을 평면 수치화하고, 곡세에 따른 공간과 부위별 볼륨량을 잡아내어 인체에 합당한 의복을 설계할 수 있는, 의복설계 전용의 계측기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계측치가 그대로 평면 수치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체형의 특성을 패턴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파악, 각 체형의 특성을 패턴으로 전개시키기 위한 논리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체의 각 부위에 대한 형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패턴 설계시 연계되어 변하는 부위를 찾아내어 인체의 계측항목으로 설정할 것이다. 그리고 인체의 형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타이트피트형 패턴설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설계용 패턴계측기 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개발된 계측기는 고유 명칭을 부여하여 앞으로 실무에의 적용뿐만 아니라 의복구성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의류수출 등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시대의 국가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평면으로 전개되는 의복의 패턴과 입체형상의 체형과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접근은 오랜 동안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얻어진 논리적 연계와 문헌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논리적 접근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계측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패턴설계시 체형에 따른 변화인자를 추출하여 인체계측의 필요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계측기는 입체적인 인체를 그대로 계측해 낼 수 있도록, 착용 가능하며 탈착이 쉽도록 제작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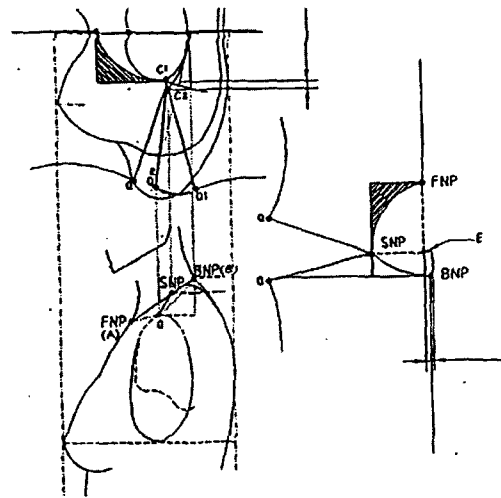
1. 타이트 피트형 의복설계를 위한 체형과 패턴과의 관계

체형은 볼륨에 따른 구도적 각도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의복은 경사와 위사가 교차된 직물로 제작되므로 수직올과 수평올이 존재하게 된다. 볼륨과 각도라고 하는 인체의 요인과 수직·수평이라고 하는 직물요인 간의 관계를 만족시킬 때 의복은 뒤틀림없이 인체에서 바르게 떨어지게 되므로 이 양자를 확인할 수 있는 타이트피트형 패턴설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파악하고자하는 부위는 다음의 6항목이었다.

1) 경부에 있어서 앞목너비와 뒤목너비의 체형별 비교

기존의 패턴에서는 보편적으로 「뒤목너비-0.5cm」를 앞목너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체형차에 의하여 앞목과 뒤목의 너비뿐만 아니라 앞목의 깊이나 뒤목의 높이도 따라서 달라져야 함을 그림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 경부와 견부 및 패턴과의 관계

[그림 1]의 인체측면도에서 AB는 앞목점과 뒤목점을 연결한 것이다. 정체형을 기준으로 굴신형은 목의 경사도가 크고 반신형은 작다⁶⁾. 따라서 앞뒤목의 경사도는 앞목깊이와 뒤목높이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다. 인체측면도의 오른쪽 그림은 정체형의 앞목깊이와 뒤목높이를 패턴으로 전개시킨 것이다. 인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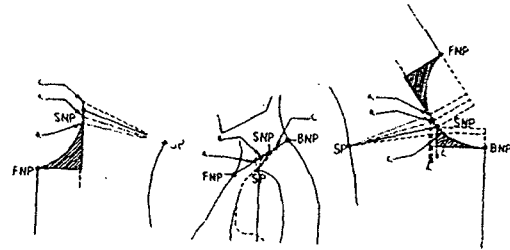
횡단면의 앞뒤중심선에 패턴을 맞추어 놓고 살펴보면 패턴의 앞판 옆목점(C1)과 뒷판의 옆목점(C2)는 인체가 곡선인 까닭에 일치하지 않는다. C1 C2를 꼭 맞추기 위하여 C2는 앞목으로 휘어져 감겨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체 곡선에 의한 뒤목 부위의 볼륨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C2가 C1으로 회전되면서 뒷판의 어깨선도 따라서 Q1에서 Q2로 이동하게 되고 그 이동된 양은 뒤중심선쪽으로 나가게 된다. 정체형 패턴에서 뒤목너비가 앞목너비보다 E량만큼 큰 것은 이러한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굴신체형은 정체형보다 A,B의 경사도가 심하며 C2가 C1에 붙기 위한 회전량도 정체형보다 많아져 볼륨량도 커지게 되고 따라서 E량도 커진다.

반신체형은 굴신체형의 반대체형으로 앞뒤목의 편차도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볼륨량도 낮아지고 E량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뒤목너비가 앞목너비에 비해 작은 상태가 된다.

[그림 2]는 옆목점을 이동시켰을 때 패턴에서의 어깨선과 앞뒤목너비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옆목점(SNP)은 앞길이와 뒤길이를 측정할 때 변화되는 부위이다. 이 옆목점에서 어깨끝점(SP)에 이르는 선의 이동은 디자인상의 문제이나 줄무늬나 체크 등 원단의 무늬를 맞추기 위해서도 이동시켜야 할 경우가 있다. 기본목선에서 앞목과 뒷목너비를 똑같이 준 뒤 옆목점을 그림에서 처럼 A, B, C로 이동시켰을 때 앞목너비보다 뒤목너비의 변화가 더 클 수 있다. 동시에 뒤목점(BNP)을 기점으로 한 옆목점의 높이 변화에 따라 뒷목의 너비도 달라짐을 볼 수 있다. 뒷목의 높이는 상의의 전체적인 실루엣에 영향을 주고 정체형, 반신형, 굴신형에 따라서 변하므로 옆목점과의 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계측기는 이러한 미세한 점을 해결하여 패턴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야만 한다.

2)어깨경사도와 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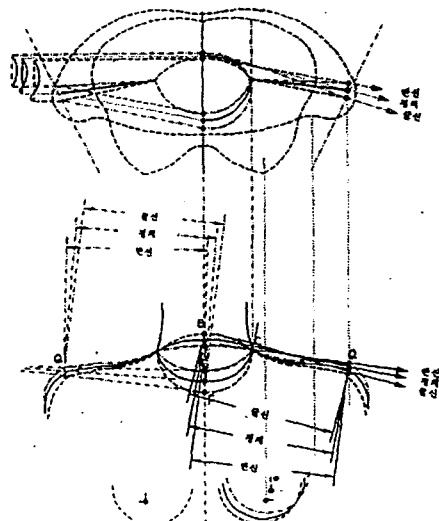
어깨는 상의 지대부이므로 어깨경사도가 맞지 않으면 원단의 울이 뒤틀리고 앞자락이 벌어지거나 중심에서 겹쳐지는 현상이 생긴다. 일반적인 인체에서의 기본어깨의 의복을 상견인 사람이 착용하면 어깨부위쪽으로 옷을 들어 올리게 되어 앞중심선이



[그림 2] 옆목점 이동에 따른 어깨선과 앞뒤목 너비의 변화

벌어지고, 하견인 사람이 착용하면 어깨부위가 쳐지면서 몸쪽으로 부딪쳐 겨드랑 밑쪽에서 가슴에 이르는 부위에 여분의 처져내림이 생기며 앞중심이 겹쳐지게 된다. 즉 어깨의 경사도는 옷의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인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어깨경사도에 따른 어깨길이의 변화이다. 이때 CQ(옆목점에서 어깨끝점)까지의 어깨길이는 동일하다. 그러나 뒷목점(B)에서 어깨끝점(Q)까지의 길이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굴신>정체>반신의 순이고, 앞목점(F)에서 어깨끝점(Q)까지의 길이는 반신>정체>굴신의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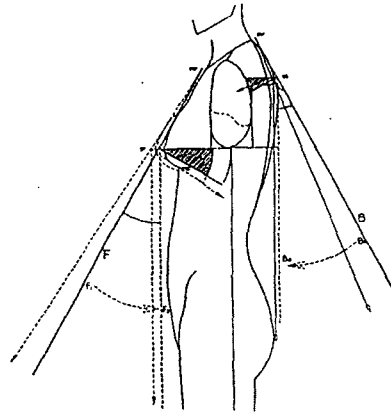
[그림 3] 어깨경사도에 따른 어깨길이

어깨경사도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굴신체에서 어깨선은 앞으로 이동하면서 처지는 경향이 있고 반신체에서는 뒤로 이동하면서 다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깨부위의 상태를 정확하게 계측해낼 수 있는 계측기가 요구된다.

3) 가슴 돌출과 견갑골부위의 돌출에 따른 다트형성 상체에서의 볼륨은 앞쪽은 유방의 크기, 뒤쪽은 견갑골의 돌출정도에 의해 형성된다. 뺏힌 원단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림 4]에서 보는 바와같이 원단(F선)은 앞가슴에서 B·P를 지나 뺏쳐나가고 마찬가지로 뒷목을 중심으로 등에 얹어 놓았을 때 원단(B선)은 견갑골을 지나 뺏쳐나간다. 이 뺏어나간 원단을 각각 B·P에서 수직으로(F1→F2)떨어뜨리고, 견갑골에서 수직으로(B1→B2)떨어지게 한다면 이때 생기는 각도 만큼의 치수가 바로 앞뒤의 다트분량이다. 즉 뺏친 원단이 B·P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면 유방부위의 측면에 남는 분량이 생겨나므로 그 량만큼을 짊어 주면 그것이 바로 빗금친 부분의 가슴 다트량이 되는 것이다. 이 가슴 다트량은 유방의 볼륨이 클수록 많아진다(그림 4에서 점선). 뒤도 마찬가지로 견갑골부위의 돌출점(S·S)에서 원단을 수직으로 떨어뜨리고 남는 분량을 뒤암홀선상에서 짊어 주면 그 량이 바로 뒤펀의 암홀다트량이 된다. 즉 정확한 볼륨량에 의한 가슴의 각도 만큼 다트량을 잡아주고 등 돌출량 만큼 다트로 처리해 줄 때 옆솔기선에서 앞·뒤 수평율이 만나게 된다. 정확한 앞·뒤 기본다트량이 산출되지 않으면 옆솔기선에서 앞뒤수평율이 맞지 않게 되므로 착용시 울이 뒤틀린 의복을 얻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다트량과는 별도로 반드시 앞판과 뒤펀의 가슴선상의 수평선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계측기는 다트량과 더불어 가슴선에서 앞뒤의 수평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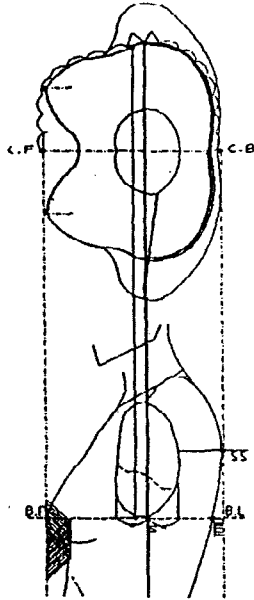
4) 앞판과 뒤펀의 분리

[그림 5]는 인체의 측면도와 횡단면도이다. 측면도에서 진동폭(너비)에 의해 형성되는 앞AH각과 뒤 AH각 사이의 길이의 이동분점과 수평의 가슴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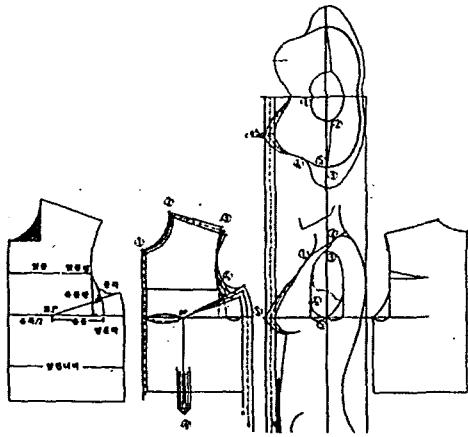


[그림 4] 가슴돌출과 견갑골부위의 돌출에 따른 다트량

만나는 점을 옆선점이라고 할 때, 그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뒤는 뒤펀중심선까지의 거리, 앞은 BP를 지나 앞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를 각각 측정해 보면 횡단면도에서와 같이 앞판이 큼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량이 앞판과 뒤펀의 차이치수가 되며 이것은 가슴의 볼륨으로 인한 것이다. 가슴볼륨에 의해서 형성되는 앞판과 뒤펀의 차이를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면, 앞가슴의 볼륨량을 커버하지 못하여 앞은 당기게 되고, 뒤는 앞에 있어야할 량이 뒤펀에 가산되어 남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의복의 실루엣에 있어 균형이 맞지 않게 된다. 유방의 볼륨이 커지면 커진 량만큼 앞패턴에 가산되어야 하므로 앞패턴은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슴볼륨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의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가슴볼륨의 차이에 따른 변화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좌측의 그림은 각 항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부위별 명칭이다. 가슴의 볼륨으로 인하여 패턴설계시 변하는 항목은 B·P에서 ① 목앞점 ② 목옆점 ③ 어깨끝점 ④ 앞품점까지의 거리 ⑤ 앞판너비 ⑥ 유방 밑에 형성되는 앞의 공간 등이다. 그러나 A·H길리와 뒤펀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유편은 가슴다트량과 방향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만 얻을 수 있다. 품각은 앞품점과 다트량에 의해 형성되며 암홀각 위치가 정확해야 앞판과 뒤펀이 분리될 수 있다. 가슴 볼륨량은 의복설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계측기는 이러한 가슴볼륨의 변화를



[그림 5] 앞판과 뒷판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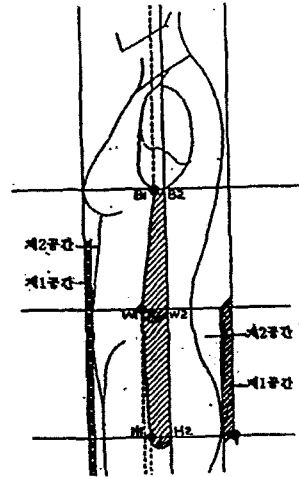


[그림 6] 유방의 크기에 따른 앞패턴의 변화

빠짐없이 체크해 낼 수 있어야만 한다.

5)인체의 곡세에 따른 인체와 의복사이의 공간량
 인체의 곡세에 따른 인체와 의복사이의 공간량은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BP와 SS점에서 수직선을 내렸을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공간량과 볼

륨량은 가슴크기, 복부돌출, 오리힙(엉덩이 돌출형), 골반돌출형(등이 굽고 허리가 앞으로 접혀서 장골극 부분이 앞으로 돌출하고 힙은 치지는 형), 등부위의 곡세와 같은 인체의 부분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거나 달라진다. 이때 부위에 따른 공간량과 볼륨량은 분리되어야 한다. 다시말하자면 공간량이란 추를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형성되는 수직개념의 공간을 말하며 볼륨량이란 임신부의 배나 오리형의 엉덩이와 같이 돌출되어 형성되는 량을 말한다.



[그림 7] 인체의 공간량 및 체측선과 수직요선

[그림 7]에 나타나 있드시 B·P에서 수직으로 내린 추에 의해 복부의 공간량을, 견갑골돌출점(SS)에서 수직으로 내린 추에 의해 등과 엉덩이부위에서의 공간량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속에는 2개의 다른 공간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1공간, 제2공간이라고 명명한다. 여기서 제1공간은 앞면에서는 BP에서 수직선을 내려 복부와와의 사이에 생기는 수직공간이고 뒷면은 등돌출 부위에서 수직선을 내렸을 때, 엉덩이 돌출부위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수직공간을 말한다. 제2공간은 제1공간의 내측선과 체표사이의 인체굴곡에 의해 만들어지는 닫힌 공간을 말한다. 타이트피트한 의복패턴설계시 제1공간과 제2공간은 다투량으로 함께 처리되거나 따로 분리되어 처리된다. 따라서 인체에서 수직

으로 떨어지는 제1공간과 인체의 굴곡에 의하여 형성되는 닫힌 공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2공간은 분리되어 계측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량은 반신·굴신 등 체형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진다. 계측기는 어떠한 체형이라도 이러한 공간들을 계측해 낼 수 있어야 한다.

6) 의복에서 수직을 찾아준다.

일반적으로 상의 패턴을 제도하고자 할 때 기준이 되는 치수는 가슴둘레이다. 가슴둘레를 1/4등분하여 체측선을 설정한다. 이렇게 전체를 1/4로 하였을 때 옆선은 [그림 7]의 인체측면도에 표시된 B1, W1, H1이다. 그리고 B2, W2, H2는 수직을 찾은 옆선의 평면적 표현이다. 상체의 볼륨감은 유방을 중심으로 앞에 형성되고 하체는 엉덩이에 몰려 있으므로 실제 옆선은 가슴선상에서 진동폭(너비)의 1/2에 해당하는 위치를 지나면서 수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에 차이가 있다해도 의복 착용시 원단의 울은 수직으로 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선상에서의 앞판너비와 뒤판너비 각각에서 수직으로 내린 정을선과 엉덩이치수와와의 차이치수를 계산하여 총 늘어난 분량을 처리해 줌으로써 독립된 측면 골반량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인체측면의 수직을 찾을 수 있어 의복착용시 상하체의 균형을 이룬 바른 솔기의 의복패턴을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직을 위에서 언급한 여러 항목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 찾아낼 수 있다.

2. 패턴제작용 계측기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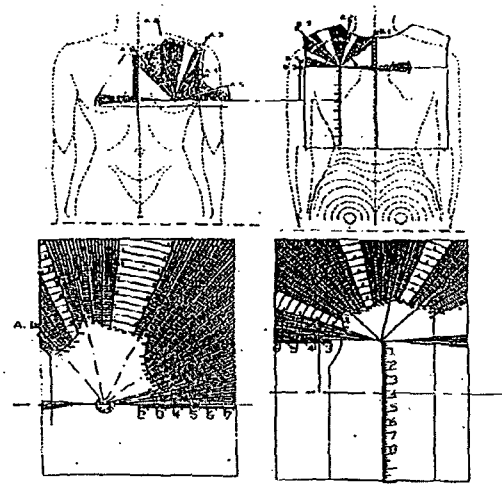
여러 가지 체형의 차이는 인체의 볼륨에 따른 구도적 각도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이 볼륨과 각도를 정확하게 콤파스로 찍어내듯이 패턴으로 옮겨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된 마르틴 계측기로는 각도와 볼륨을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위에서 고찰된 항목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인체에 착의시키는 쪽으로 고안하여 패턴제작용 계측기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인체의 곡선에 밀착되도록 계측기의 재료는 펠트천을 사용하였고 인체의 각도를 넣을 수 있도

록 비닐판을 부착하였으며 가변적인 가슴 볼륨처리를 위해 가슴부위에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직개념과 공간량, 돌출정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추를 달았으며, 앞뒤판 수평을 위해 물의 속성인 수평원리를 이용한 환형관을 첨가하였다.

따라서 계측기의 구성은 크게 직접계측을 위한 물수평기, 탈착이 용이하고 각도가 표시된 앞 뒤판 계측본, 수직파악을 위한 추, 그리고 계측된 각도와 수치를 옮길 수 있는 사이즈 페이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은 개발된 계측기의 앞판과 뒤판 및 각각의 사이즈페이퍼이다. 앞판은 좌우의 BP를 기준으로 유두 사이가 수평을 이루도록 한 상태에서 인체에 편안하게 착용시킨 후 가슴 크기에 따라 비닐판을 가볍게 쓸어내려 사용한다. 뒤판은 양견갑골 돌출점을 기준으로 하여 편안하게 놓아주고 돌출 정도에 따라, 절개되어 있는 암홀선으로 다투량을 조절한다.



[그림 8] 개발된 계측기의 착의상태 및 사이즈 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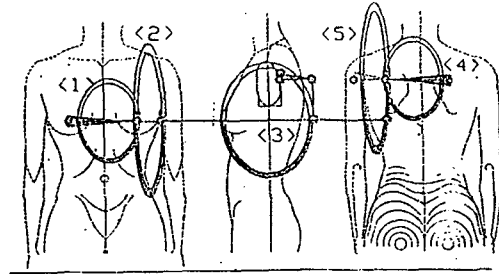
3. 개발된 계측기의 계측과정

<계측준비단계>

1) 계측기를 인체에 착용시키기 전에 인체의 앞쪽에서는 앞목점(A1), 옆목점(A2), 어깨끝점(A3), 앞

품점(A4)을, 그리고 뒤쪽에서는 뒷목점(B1), 뒤편점(B4)등 6항목을 설정하여 표시를 해 둔다. 이때 앞목점은 전체 목둘레에서 좌우의 둘레가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하므로 줄자로 앞목점과 뒷목점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

2) 계측기를 인체에 착용시켜서 계측준비 상태로 둔다.



[그림 9] 개발된 계측기의 측정순서

<계측방법>

[그림 9]에서 계측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① 물수평기를 이용하여 인체의 수평과 불륨을 찾는다.

단계1: 앞수평잡기(Bust line선상에서)

BP를 중심으로 좌우의 수평선을 잡고 이때의 눈금을 사이즈 페이퍼에 기록해 둔다.

단계2: 유방의 불륨에 의해 형성되는 각도 (가슴의 MP량이 파악됨)

BP를 중심으로 앞겨드랑 위치에서 수평이 되는 각도를 기록해 둔다.

단계3: 앞과 뒤의 수평 잡기

BP를 중심으로 견갑골 돌출점에서 내려온 수직의 선에서 눈금을 기록해 둔다.

단계4: 뒤통수 잡기

견갑골 돌출부위와 뒤통수선이 수평을 이루었을 때의 눈금을 읽어서 기록해 둔다.

단계5: 뒤통수의 MP량

(뒤통수다트 또는 뒤통수다트로 변형 가능)
계측기를 입힐 때 자연스럽게 겹쳐진 암홀 선상의 수치를 기록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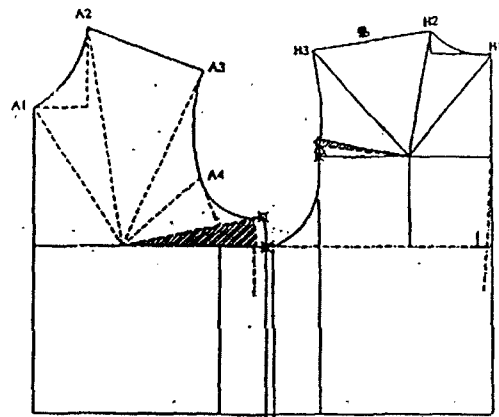
② 앞뒤의 BP와 견갑골점에서 앞 옆 뒤목과 어깨끝점, 앞품점까지의 각도와 길이를 유연성 있는 눈금자로 동시에 측정한다.

단계1: 앞면은 BP에서 A1, A2, A3, A4까지의 각도와 길이를 사이즈페이퍼에 기록해 둔다.

단계2: 뒷면은 견갑골돌출점에서 B1, B2, B3까지의 각도와 길이를 기록해 둔다.

③ 사이즈 페이퍼의 각도 눈금상에 기록된 수치들을 옮겨서 패턴을 설계한다.

[그림 10]은 완성된 패턴이다.



[그림 10] 완성된 패턴

IV. 결 론

인체의 1차원적 계측이 아닌, 인체와 패턴이 연계된 의복설계 전용의 인체계측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인체계측기는 인체의 인체형상을 그대로 수치화하여 패턴으로 연계시켰으며 인체 유형을 곧바로 관찰할 수 있는 타이트피트형 패턴설계를 위해 시도되었다.

인체와 패턴과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항목은 6항목이었다. 즉 1) 앞목너비와 뒤목너비 2) 어깨경사도 3) 가슴의 돌출과 견갑골부위의 돌출정도 4) 앞판과 뒤판의 분리 5) 인체와 의복사이의 공간량 6) 의복에서의 수직올로 나타났다.

또한 패턴설계에 있어서 인체의 균형을 불륨과 각도라는 측면에서 인식하여 물수평기와 각도를 활

용한 계측기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계측기(의장등록출원번호8312호)는 사용이 간단하고 계측부위가 적으면서 입체적인 인체형상을 평면으로 바로 수치화할 수 있어서 보정이 거의 필요없으므로 노력과 시간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인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살린 신체적합도가 높은 타이트피트형 패턴을 설계할 수 있으므로 체형차에 따른 패턴제작이 쉬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을 전개시킬 수 있는 정확한 뼈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원단에 있어서 수직율과 수평율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어 미적인 외관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의복패턴을 제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계측기는 「Somato-pattern Measurer」, 사이즈페이퍼는 「Somato-pattern Paper」, Somato-pattern Measurer에 의해 완성된 패턴은 「Somato-pattern」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체의 크기인자와 형태인자에 의한

체형의 차이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이즈에서의 체형에 따라서 발생하는 패턴설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앞으로 계속하여 Somato-pattern Measurer에 의한 여러 가지 Somato-pattern의 적용과 활용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계속 발표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임원자, 의복구성학-설계 및 봉제-, 교학사, 1996.
2. 김혜경 외, 피복인간공학 실험설계방법론, 교문사, 1997.
3. 심부자, 피복인간공학, 교문사, 1996.
4. 박혜숙 외, 피복구성학 이론편, 교학연구사, 1998.
5. 間壁治子, 被服のための人間因子, 日本出版, 1991
6. 나미향·김정숙 역, 의복과 체형, 예학사, 1999.